

고창 반암리서 '초기청자가마터' 확인

국내 초기청자 도입·전개과정 밝힐 중요 자료로 평가

고창군 반암리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엿볼 수 있는 초기청자가마터가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지난해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3기, 퇴적구릉, 건물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에서 가마터의 성격과 범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추진해 조사결과 조사범위 내에서 벽돌가마(전축요) 1기, 진흙가마(토축요) 4기, 건물지 2동 등이 확인됐다.

벽돌가마는 지난해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후대의 진흙가마와 중복되어 단면 상에서 일부 흔적이 확인됐으나, 올해 발굴조사에서는 조사범위 가장 윗부분에서 가마의 소성부(燒成部, 그릇을 두는 곳)와 연소부(燒成部,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가 확인됐다.

노출된 벽돌가마는 길이 7.8m, 너비 2.7m, 바닥경사도 10° 내외로, 가마 축조는 구지표층을 사선으로 굴곡한 다음 벽돌을 놓여쌓기 했다. 가마 축조에 사용된 벽돌은 잔존 7단 정도이고, 3회 정도 개축하여 운영했음이 밝혀졌다.

진흙가마(2호~5호)는 총 4기가 확인됐다. 2호기에는 3~5호기마와 중첩되어 있어 그 존재만 파악됐고, 4호기마가 폐기된 이후 5호기마가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

진흙가마는 부분적으로 결실했으나 규모와 구조에서 동일한 양상이었다. 길이 10~12m, 너비 1.5~1.9m 정도이며, 화구(火口)는 석재를 4~5매 쌓은 후 양쪽에 기다란 석재를 세워서 축조했다. 불턱이 없어 연소부와 소성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연소부에서 폭이 줄어들다가 소성부는 약간 넓어지는 양상이다.

건물지는 2기가 확인됐는데, 조사구역 외곽까지 확장된다. 이중 1호건물지는 3호기마에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1.7m 정도 떨어져 자리하며 기단석렬과 적심석, 초석(礎石, 주춧돌) 등이 일부 노출됐다. 건물외의 규모는 정면 3칸으로 추정되며, 주간거리는 2.7m 내외이다. 유물은 청자, 갑발, 도기, 기와 파편 등이 출



고창군 반암리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엿볼 수 있는 초기청자가마터가 확인됐다.

토됐다. 청자는 해무리굽 완이 다수를 차지하며, 독립문형 청자와 화판형 접시, 잔, 주자, 호 등도 소량 확인됐다.

갑발(匣鉢, 불길과 재 등이 청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청자 위에 씌우기 위해 접도로 만든 그릇)은 발형과 복발형, 원통형 등이 있으며, 갑발 받침과 뚜껑도 확인됐다. 특히 갑발 바닥과 옆면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문양(부호)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고창에 초기청자를 생

산하는 벽돌가마의 명확한 존재와 축조기법이 밝혀졌다. 벽돌가마는 고려 수도인 개경(開京) 중심의 중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나, 최근 진안 도동리에서도 조사되어 시작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번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잔존 상태가 양호한 벽돌가마가 명확히 확인됨에 따라 사적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

특히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는 벽돌가마 이후에 축조되는 진흙가마도 4기가 조사되어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협소한 조사범위 내 5기의 초기청자 가마가 중첩되어 축조된 양상은 '아파트형 가마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거의 사례가 없다.

또 기존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반암리 청자요지에 적어도 2기 이상의 진흙가마가 더 축조된 양상이 확인되었기에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가 초기청자 생산의 메카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이에 더해 구릉의 하단부에서 대형 건물지가 확인됐다. 특히 1호건물지는 확인된 길이만 31m에 달하며, 이는 초기청자 생산과 관련된 공방 또는 감독관리시설로 판단된다.

학술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종민 충북대학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는 "초기청자가마로써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의 변화양상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드문 유적이다"며 "10세기 후반경부터 오랫동안 운영됐고 대형 건물지까지 확인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하여 추가조사 등을 통해 사적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반암리 청자요지 일원은 고창 용례리 청자요지(사적), 고창 분청사기요지(사적),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요지(도기념물) 등 다수의 가마터가 밀집분포하는 등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고창 반암리 청자가마터를 통해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화과정, 생산과정, 관리체계까지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되므로 앞으로의 조사성과가 더욱 기대되며, 또한 유적의 보존관리와 함께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호주 멜버른 아트플레이,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참여예술인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팔복예술공장과 호주 멜버른 아트플레이(ArtPlay)가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마련, 오는 26일까지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트플레이(ArtPlay)는 호주 멜버른시 산하의 공립 예술센터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예술가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창의적인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국제교류 사업은 전주시역 예술인 3인과 멜버른 예술인 1인이 함께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진

행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예술인으로 선발되면 약 6개월 간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전주와 멜버른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나이, 학력의 제한 없이 전주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시에는 국제적 소통을 위한 영어회화 능력이 우대되며, 리더예술인 1인(총괄), 파트너예술인 2인(디자인/일러스트레이터, 아카이브)을 분야별로 모집한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온라인 화

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주-호주 멜버른 양 도시의 공동개발 결과물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3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에서 런칭 이후, 호주 멜버른을 비롯한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를 잇는 전시와 워크숍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참가신청서, 포트폴리오 제출)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서는 전화(063-283-9221)로 하면 된다.



남원시는 지난 14일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시상식을 예루원에서 진행했다.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시상

대상 '3단 혼수함' 수상... 역대 대상 작품 특별 전시

남원시는 지난 14일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시상식을 예루원에서 진행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통 옷칠의 가치를 더욱 확대하고 산업적으로 널리 보급하고자 매년 '옷칠 목공예대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도 총 37점의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회장인 박종근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수상자 수여식 대신 대상에서 동상 수상자인 10여명만 시상하는 형태로 열렸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역대 '대상' 작품을 특별 전시해, 그동안 이어온 목공예 대전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큰 호응

을 받았다. 대상(국무총리 상) '3단 혼수함'(박만기 작)은 주철에서 가장 어려운 색깔의 발색을 동일하게 잘 표현하고 마감처리도 완벽에 가까웠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옷칠 목공예부문과 같이부문의 금상은 조현영씨의 '서인'과 이주섭씨의 '달항아리 반상기' 수상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을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예루원에서 진행되는 남원 전시회를 시작으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인사동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노무현 대통령 삶 전시로 회고

18~23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교동미술관서 서거12주기 추모 사진전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 교동미술관 본관 2전시실에서 18일부터 23일까지 추모 사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기 전에 '시민'이었던 사람,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 그는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한 가치다.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늘

우리 곁에 따뜻한 사람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청년으로, 시민 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전시로 회고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5월 한 달간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며, 추모 프로그램은 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